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데살로니가전서 5:1~23. 참된 성도는 예고된 표적을 주시하고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에 대해 준비를 한다.(20~25분)

여러분의 첫 아기가 태어날 정확한 날을 예고해 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아기가 태어날 정확한 순간을 결정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을** 읽고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재림에 비유하였는지를 찾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재림을 묘사하기 위하여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하였는가?
- 어떻게 하여 이것이 훌륭한 비유가 되었는가?
- 그분이 오실 때에 누가 놀라게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5절을 읽고 누가 놀랄 것이며 누가 놀라지 않을 것인지를 찾아본다.

칠판에 두 개의 칸을 그리고, 한 칸은 빛의 자녀라 하고 다른 칸은 어두움의 자녀라 한다. 학생들에게 각각의 특성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11절에서** 찾아보게 한다. 찾은 것을 해당되는 칸에 열거하고 반 전체가 이에 대해 토론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의 다음 인용문을 나눈다.

“계명대로 생활하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목적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영적인 빛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부지런히 계명을 지키면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또 개인적인 계시의 은사를 받습니다. 이것은 등대 역할을 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는 영적인 빛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어둠을 내어줍니다. 이 빛은 너무나 강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빛이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깊고 어두운 죄의 수렁에 빠져 있는 때에도 우리에게 비칠 수 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6년 4월, 51쪽; 또한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36쪽)

질문한다.

- 주님이 오실 때 일부 사람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될 이유는 무엇인가?
-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학생들의 대답에 대해 토론한다.)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서 **교리와 성약 106편 4~5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허리를 동여”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은 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그렇게 하는 일곱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주었다.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한 그룹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15절을** 배정해 주고 성도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을 열거해 보게 한다. 다른 그룹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22절을** 배정해 주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을 열거해 보게 한다. 칠판에 열네 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 토론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소망의 표현을 찾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여러분은 좀 더 큰 축복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가?

• 이 축복은 왜 아주 값비싼 것인가?

•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받는 데 이러한 열네 가지 사항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시간이 허락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7절에 대해 23절을** 상호참조하고 또 거룩하게 되는 데 필요한 성적인 순결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1~3 (성구 익히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배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10~15분)

학생 두 명이 선교사 역할을 맡게 한다. 다른 학생 한 명이 구도자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은 학생들이 수업 시작 전에 간략하게 역할극을 연습하게 하거나 수업을 시작할 때에 조그만 카드에 지침을 적어 줄 수도 있다. 선교사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참된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말하도록 한다. 구도자 역할을 맡은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도록 한다.

“만일 예수께서 그분의 교회를 지상에 세우신 이후로 그 교회가 지상에 있어 왔다면, 왜 회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반원들이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줄 수 있을지 제언하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여러분은 우리 선교사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얼마나 자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배도 및 회복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선교사 경험에 매우 중요할 것임을 학생들에게 말해준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읽게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주의 날이란 무엇인가?
- 그 날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배도하는 일은 또한 대배도로 알려져 있다. 무엇이 배도를 일으켰는지 찾아보면서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2장 7~9절을** 읽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무엇이 사탄의 표적과 거짓 기적이 되어 왔을 수 있는가?
- 대배도(교회의 배도하는 일)이외에, 다른 어떤 종류의 배도가 있는가?
- 개인들도 배도할 수 있다면, 사탄은 그들을 속이기 위해 어떤 종류의 표적과 거짓 기적을 사용하는가?
- 우리는 어떻게 사탄의 표적과 거짓 기적을 피할 수 있는가?
- 사탄은 우리를 배도하도록 부추기는 일에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개인적인 배도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면서 학생들에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을** 읽게 한다. 이제 막 가르친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해롤드 비 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고 마친다.

“이제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안전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조직된 날에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치적인 견해와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회적 견해에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활 일부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치 주님의 입에서 친히 나오는 말처럼 이러한 것들에 귀 기울이신다면 ... 지옥 문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70년 10월, 152쪽; 성도의 빛, 1982년 7월호, 98쪽; 또한 교리와 성약 21:4~6 참조)